

12미지황탕을 쓴 경험의안2측

전학수*

1. 몽유증

장××, 24세, 몽유활정2년 넘음. 여러가지 치료를 했으나 호전이없다.

1987년 5월 2일에 진찰할때 용모, 체격, 체능, 성음, 심리상태를 검사하니 소양인이었다. 꿈이 많고 유정이 빈번하여 맥이 뚝 떨어지며 숨이 차고 매우 피곤하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건망증이났다. 증상을 볼때 소양인의 몽유증이다.

치료방법 및 결과 : 12미지황탕; 숙지20g, 산수유10g, 복령7.5g, 택사7.5g, 목단피5g, 지골피5g, 현삼5g, 구기자5g, 복분자5g, 차전자5g, 형개5g, 방풍5g, 하루에 2침씩 물에 다려 먹는다. 10침을 먹으니 병정황이 매우 호전됨으로 계속 10침을 먹었더니 이전과 같이 일이 없었다. 일년후에 여러번 방문하니 지금까지 병이 도지지 않았다.

소결 : 필자가 인식하건대 이 환자는 하초에 풍사를 받은후 액해지청기가 정에 들어가는데 영향을 받았으며 청즙이 신에 들어가는것이 부족하여 신기가 맥이 없어 덮이고 모두는 것을 못하며 정백물을 고수치 못하여 제마음대로 흐르는데 있다. 처방중에서 숙지, 산수유 복령, 구기자, 목단피, 택사, 차전자, 지골피는 신의 기운을 보충하고 건장케하며 덮이고 모두는것을 힘있게 한다. 현삼, 형개, 방풍은 하초

풍사를 풀어준다. 그러므로 액해지청기는 순리롭게 정에 들어가고 청즙은 신에 들어감이 충족하여 정백을 튼튼히 지키니 스스로 병이 나왔다.

2. 숙체증

김XX, 녀 39세. 스스로 말하기를 능히 먹지만 소화가 되지 않는다. 이미 수십방을 썼으나 시종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92년 4월 20일에 진찰할때, 용모, 체격, 체능, 성음, 심리상태를 검사하니 소양인이었다. 음식을 먹으나 소화가 되지않아 자기절로 식량을 공제하여 하루에 2냥밥을 3끼에 나누어 먹었으며 때로는 물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았다. 체질은 허약하며 현훈증이 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대변은 2일~3일에 한번씩 본다. 증상을 보아 소양인숙체증이다.

치료방법 및 결과 : 12미지황탕중에서 목단피량을 증가하여 하루에 한침씩 5침을 다려 먹었더니 병정황은 현저히 좋아졌으며 대변은 하루에 1차씩 보았다. 우에 처방대로 5침을 더 먹었더니 한때에 3냥 좌우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1년남짓이 여러번 방문했으나 아주 좋았다.

소결 : 이 환자는 내생질병중에서의 비양성증이다. 비기가 지나치게 횡승하니 비는 더욱 더 받아들이고 더욱 꼭 싸고 있음으로 머물러 모여있는것을

* 길림성 룡정시 태양위생원

농치 않는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능이 먹을 수 있지만 소화는 되지 않았다. 방중에서의 현삼, 형개, 방풍은 큰 장기를 깎고; 숙지, 산수유, 백복령, 택사, 목단피, 구기자, 복분자, 차전자, 지골피는 작은 장

기를 보충한다. 우에 약을 한데 쓰면 실한 것을 사하고 허한 것을 보태주는 공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이 스스로 나았다.